

동아일보 (92. 10-93. 12)

제 목 : 살인누명 김기웅순경, 경관 삼사 등 12명 고소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C여관에서 발생한 카페여종업원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년여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풀려난 이기웅씨(27. 전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근무)는 24일김중우 경남경찰청 차장(사건 당시 서울시경 강력과장) 등 경찰관 11명과서울지검 강력부 김홍일검사를 폭력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사건당시 서울시경 강력과장) 등 경찰관 11명과 서울지검 강력부 김홍일검사를 폭력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사건당시 서울시경 강력과장 등은 4일동안 불법감금한 채 잠안재우기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했으며 김검사는 주임검사로서수표추적요청 등을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발행일 : 93/12/25

제 목 : *** 이근안 경감 도피 5년... 홍준표검사, 검거 나서 ***

도망자 이근안 전 경감(55). 24일로 정확히 수배생활 5년째를 맞는 고문경찰 이씨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나.

지난 89년 12월 24일부터 전 민천련의장 김근태씨 불법체포 및 고문혐의로 검, 경의 수배를 받기 시작한 이씨는 앞으로 5년여를 더 도망다녀야 법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씨의 공소시효(7년)만료일인 지난 21일 동료고문경관 4명의 유죄가 상고심에서 확정된 것 등을 고려, 계산하면 오는 99년 8월 16일. 그러나 이시에게 고문당한 남북어부 김성학씨 등 2명이 지난 86년 2월 이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이 아직도 재판계류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

잠적 직후 대전에서 우편을 이용해 사직서를 당시 경기도경에 보내온 이후 이씨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처럼 감쪽같이 행방을 감춰버렸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의 이씨 집과 연고지를 중심으로 수사하고있지만 아직까지 이씨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수사단서가 없기에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이씨의 잠적 이후 행적에 대해 추측이 분분하다.

한 검찰 수사관은 이씨가 도피생활동안 극도의 좌절감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살했을 수도 있고 잠적 초기 일본으로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견해다.

이씨의 행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만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며 막내아들(16. 고2)과 단둘이 살고 있는 이씨의 부인 신모씨(54)는 "남편이 잠적한 뒤 5년동안 단 한번도 연락이 없었다"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이라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서울지검 강력부2, 3호 수사관 10여명으로 특별수사전담반을 구성, 이씨 검거에 나선 홍준표검사는 이씨가 누군가의 비호를받지 않고서는 5년 동안의 도피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며 비호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면 이씨 검거를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홍검사는 또 이씨의 자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슬롯머신수사로 이름을 날린 흥검사는 "고문경관 과거 정통성을 결여한정부의 폭압적 공안통치의 또 다른 희생자"라면서 "하지만 인간성을 말살하는 고문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씨는 기필코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성훈 >

발행일 : 93/12/24

제목 : 김근태씨 고문경관 4명, 유죄확정... 김현수씨 등 상고 기각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전 치안본부 대공 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검.경의 수배를 받고 있는 이근안 전 경기도경대공분살장의 공소 시효가 99년 8월로 잠정 결론 났으며 8년4개월 동안 끌었던 이 사건에 대한 사법치리도 일단락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주대법관)는 21일 원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불법 체포감금) 및 독직 폭행죄가 적용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2년이 선고된 김수현(59. 전 대공수사단 소속 경감), 징역 2년-1년6월의실형이 선고된 최상남(46. 당시 경위), 백남은(58. 당시 경정), 김영두(55. 당시 경위)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발행일 : 93/12/22

제목 : [TV단신] 이근안 공개수배

미해결 사건을 공개수사하는 KBS 1TV의 '사건 25시'가 5년째 수배중인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경감을 18일 밤 8시에 공개수배 한다. 이씨는 김근태 전민청련 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으나 종적이 전무한상태.

'사건25시'는 이날 이씨의 공개수배와 함께 지난 5월1일 첫 방영이후의 내용을 정리, 방영한다.

발행일 : 93/12/18

제목 : 잠안재우기 고문 검사-수사관 고소... 서경원 전의원 비서

서경원 전평민당의원의 방북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7년형을 선고 받고 전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방양균씨(38. 당시 서씨 비서관)가 자신을 수사했던 안기부수사관 김군성씨와 담당 검사였던 안종택검사(현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달 27일 전주지검에고소한 사실이 14일 뒤늦게 밝혀졌다.

방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89년 7월 안기부와 검찰에서 50여일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잠안재우기 구타등의 가혹행위를 받아 귀가 잘들리지 않는 등 심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발행일 : 93/12/15

제목 : '사건25시'에 고문경찰 이근안 공개수배 놓고 양론

TV를 통한 미제사건 공개수사로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KBS 1TV의 '사건 25시' 제작진

이 5년째 수배중인 '고문경찰관' 이근안 전경감을 공개수배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중.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제작진의의견은 찬반양론으로 팽팽하게 나뉘져 있는 상태. '고문기술자'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는 이씨는 김근태전민청련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으나 종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근안씨를 공개수배해야 한다고 보는 제작진은 사실상 '시국사범'으로 볼 수 있는 이씨가 지금까지 '사건 25시'에서 다뤄왔던 어떤 '인물'보다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중시. 특히 과거 정권에서 KBS가 보였던 자세와 관련, 일반인들 사이에 아직도 남아 있는 불신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이들은 슬롯머신업계 비리를 파헤쳤던 홍준표검사가 이씨검거에 나섰다라는 최근 보도에 적지않게 고무된 듯한 모습.

그러나 일부 제작진들은 이 사안이 그동안 '사건25시'가 다뤄왔던 전통적인 사건들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다 경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프로에서 경찰의 '아픈과거'를 들춰냄으로써 향후 제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작을 피했으면 하는 눈치.
발행일 : 93/12/14

제 목 : 유엔-유고전범재판소 내년 4월 재판 시작

구 유고전쟁에 관련된 전쟁범죄자들의 범죄를 다루기 위한 유엔유고전범재판소가 내년 4월 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안토니오 카세스 전범재판장이 27일 말했다.

카세트재판장은 이날 이탈리아의 ADN크로노스통신과의 회견에서 내년 1~2월중에 전범재판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정된 후 4월부터 전범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현재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차세계대전직후 2차대전 전범들을 처리하기 위한 전범재판이 독일 뉴른베르크와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이래 처음이 되는 이번 전범재판에서는 살인과 고문 민족말살행위외에 강간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로 다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발행일 : 93/11/30

제 목 : 구유고 전범재판소 문열어

구유고 분쟁에서 학살 강간 고문등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유엔 전범재판소가 17일 2차대전후 처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헤이그에서 개소됐다.

칼 아우구스트 플라이쉬하우어 유엔 사법담당사무차장은 각국 출신 검사 11명이 참석한 이날 개소식에서 이 전범재판이 구유고에서 벌어지고있는 고통과 비극의 악몽을 끝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지도자들은 전범용의자들을 결코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범재판소의 권능을 비웃고 있다.

지난 91년 이후 보스니아 회교정부와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등 분쟁당사자들은 20만여명이 사망 실종되고 2백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이내전에서 모두 학살을 저질렀으나 특히 엄청난 규모의 강간 살인 고문등을 자행한 세르비아계가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발행일 : 93/11/18

제 목 : [사회머리] "고문으로 자백"... 국가상대 소송 잇따라

폭행 자백강요 등 검찰과 경찰의 강압을 못이겨 수사단계에서는 거짓자백을 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있다.

지난 91년1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구완희(30. 대구 달서구 감삼동)는 8일 검찰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4천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구씨는 소장에서 "살인사건 당시 봉천동에서 우유배달을 하고 있었다는이유만으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연행돼 팔다리가 묶인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또 "검찰에 송치된 뒤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억울함을호소했으나 담당검사가 이를 조서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경찰의 의견만 받아들여 구속기소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10개월여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검찰의 강압에 못이겨 허위자백, 구속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동씨와 서울마포구 대흥동 어린이방화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권모군가족 등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7월 권군가족에게 8천만원, 지난 9월 김씨에게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발행일 : 93/11/09

제 목 : ~~"강희철씨 간첩사건은 조작"...~~ 천주교 제주교구 주장

천주교제주교구사제단(대표 임문철신부)은 8일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7년째 복역중인 강희철씨(35. 북제주군조천읍 신촌리)가 불법 감금과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에 따르면 강씨는 아버지가 사는 일본 오사카로 밀항했다가 지난81년 일본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강제송환된 뒤 부산에서 3박4일동안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지난 86년4월 또다시 제주지방경찰청(당시 제주도 경찰국) 대공수사관에 연행돼 1백5일동안의 고문 끝에 간첩으로 몰려 무고한 옥살이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사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송 수신기 난수표 목격자등 직접증거 없이도내 주요기관 학교 등의 위치를 전달했다는 내용만으로 혐의사실이 꾸며졌으며 지난 9월 일본 현지방문 결과 공소내용에 강씨의 간첩활동을 지원했다고 기록된 전성광씨(35. 오사카시 거주)는 강씨와 교분이 전혀 없다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6년12월 제주지법에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사제단은 "간첩혐의 조작은 독재권력이 특진과 포상을 미끼로 빚어낸구조적인 비극"이라고 주장하며 강씨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발행일 : 93/11/09

제 목 : [사실] ~~검찰이 자행하는 고문~~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떤 수사기관을 막론하고 형사피의자에게 일질 심리적 육체적 폭력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아니한다'고 규정, 고문을 받지 않

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이 기본권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문등에 의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문을 한 수사요원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재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기에 검찰이나 경찰등 일반수사기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에 대해서는 특히 고문을해서는 안된다는 당위에 있어서나 고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가중되고 있다. 일반국민이 그렇게 바라고 있을 뿐더러 법률에서도 그렇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앞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피고인이 인정만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등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그밖에 "그 진술내용이 직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피고인이 인정해야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그만큼 검찰수사, 특히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뢰를 두고 있다. 또 검찰에 대해서 수사의 주체자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그만큼 검찰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임용자격이 법관과 동일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행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그리고 국민의 의식속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재는 어떠한가. 검찰이라고 헌법이 금지하고있는 '고문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피의자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검찰 스스로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점에서 그래도 경찰보다는 덜 가혹했다고 우길수 있을지 모르나 그정도로는 법과 국민의식에 개대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

대검찰청이 행하는 검찰자체의 가혹행위조사의 중요성이 여기에있다. 경찰의 위법수사는 검찰이 제어할 수 있지만 검찰의 경우는다른 기관의 감독감시를 받지아니한다. 자체감시감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검조사는 검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문제되어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 사안등을 중심으로 행해지고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평소 자체감독업무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학자들이 말하는 검찰의 피의자신문등 수사방법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허물어질때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은 한낱 범조문일뿐검찰파소를 초래할 뿐이다. 그런 폐단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검찰의 직접수사를 자제하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데 역점을 두는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검찰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없기때문이다.

발행일 : 93/11/02

제 목 : 피의자에 몰고문등 가혹행위 또 발생

검사가 수사관 8명을 지휘, 검찰청사내에서 피의자에게 몰고문과 통닭구이, 구타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구속시켰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고박중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씨 고문 사건, 권인숙씨 성고문사건 등 일련의 고문사건이 지금까지는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데 비해이번 사건은 검찰청사내에서 검찰 소속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24일 지난 89년 10월 사기등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검사(41. 사시 19회, 현재 수원지검 강력부장) 방에 불법연행돼 이치근 수사관 등으로부터 30여시간의 가혹행위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가 무죄로 풀려난 김학동씨(45. 택시기사, 서울 강동구 암사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입힌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수사관들이 89년 10월 23일 오후부터 25일새벽까지 김씨를 조

사하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구타를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22개월간의 이번 사건 소송에서 "당시 검찰이 보험료를 노린 고의 교통사고 사건 일제단속을 벌이면서 영뚱하게도 9개월만 지나면 장기근속 무사고운전기사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게 돼 있던 나를 지목, 30여시간 동안 4개의 조사실을 끌려 다니며 3차례의 겨자씨 물고문(수건을 얼굴에 덮어씌운 뒤 겨자물을 붓는 고문), 통닭구이등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3차례나 실신한 끝에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난 9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소송을 냈다.

발행일 : 93/09/24

제 목 : [새로나온 책] 살아있는 무덤 (어윤순 저)

고문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운동권출신남자와 가해자인 고문경찰관의 누이동생의 만남과 사랑을 담은 장편소설. 저자는 캐나다에 체류중인 여류작가.

< 햇빛출판사. 5, 500원 >

발행일 : 93/09/16

제 목 : [여록] 노신영 전총리 "고문치사 파해쳤다"

7일 '평화의 댐' 건설진상조사를 위한 국회건설위 이틀째 증인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신영 전국무총리는 지난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파해친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

노 전총리는 민주당의원들이 질의도중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박군 고문치사사건을 계속 언급하자 "이제 말하겠지만 맹세코 박군 사건을 파해친 "장본인은 바로 나"라며 "내가 당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보고를 의심, 관계장관에게 지시해 파해치게 했다"고 강조.

그는 이어 "내 메모에도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렸는데 증언이 끝난 뒤 기자들이 무슨 메모냐고 묻자 "몇년뒤에 나올 자서전 얘기"라고 답변.

발행일 : 93/09/08

제 목 : [기자의 눈] '고문판결'과 검찰의 무표정

서울고법이 지난 23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직경관 4명에게 징역 3년~1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한 것은 검찰로서는 뼈아픈 판결이었다.

검찰은 지난 87년 1월 김씨의 부인과 대한변협인권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고문경관 및 김씨 수사검사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들은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이번 판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마지못해 "검찰로서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검사들은 어둡고 살벌했던 당시의 시대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굳센 변명을 되풀이 하고 있다.

김씨의 부인과 대한변협인권위원회는 지난 86년 1월 고문경관들과 경찰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목살한 당시 서울지검공안부 수사검사를 고문과 직무유기혐의로 각각 서울지검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배방받은 서울지검특수부는 수사를 1년여동안 끌다가 지난 87년 1월 "고문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발자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사는 지금 청와대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경찰의 고문행위를 수사해 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목살했던 검사는 서울지검간부로 재직중이다.

당시 이들을 고발했던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시대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검사가 이를 이유로 제대로 사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검찰이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시 검찰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부 출범이후 검찰이 사정활동의 한 중추기관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이는 시대흐름에 따른 것일 뿐 검찰조직의 진정한 환골탈태의 소산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프레스센터가 최근 문민정부출범 6개월을 맞아전국의 성인 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국민정치의식을 조사한 결과 검찰(46.3%)이 종교계(58.5%)에 이어 두번째로 달라진 것이 없는 집단으로 지적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검찰이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뼈아프게 뉘우친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 양기대 사회1부 >

발행일 : 93/08/27

제 목 : [해설] 김근태씨 고문 경관 법정구속의 의미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과 함께 5공의 3대고문 사건으로 꼽혀온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고문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재판부가 고문관련 전직경관들을 전원 법정구속한 것은 고문 범죄자는 반드시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사건 역시 다른 고문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문피해자인 김씨의증언외에는 뚜렷한 물적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을전적으로 수용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가물거리는 의식속에서도 고문이 가해진 시간과 장소, 고문경관들을 기억해 이를 폭로한 김씨의 주장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 7년1개월, 재판에 회부된지 7년1개월, 재판에 회부된지 4년9개월만에야 고문경관들에 대해 법정구속이라는 사실상의 처벌이이뤄진 것은 정치상황에 따라 왜곡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상을 엿보게하는대목이다.

검찰은 86년1월 김씨와 대한변협이 고문경찰관 및 관련자 15명을 고발해 온데 대해 1년여가 지난 87년 1월에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은 정치상황이 크게 바뀐 88년12월 서울고법이 변호인단의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창국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지정돼 수사에 나섬으로써 법의 심판이 가능해졌다.

재판에 회부된 뒤에도 1심에서는 담당재판부가 세차레나 바뀌고 19차에걸쳐 공판이 진행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91년1월 고문사실을 인정,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역시 고문관련 피고인들이 불구속상태에서 끝없이 증인들을 동
친 공판끝에 결국 이날 실행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에 까지 이르렀다.

한편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수배중인 전 경기도경公安분실장 이근안씨의 고문가담사실
도 인정함으로써 이씨 검거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지난 3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이씨를 추적중이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불법체포 감금)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김수현
피고인 등 \이 재판에 회부된 88년12월15일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돼 이씨의 경우 3년8개월의
시효가 남아있다.

발행일 : 93/08/24

제 목 : 김근태씨 고문경관 4명, 항소심서 전원 법정구속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피고
인(59)등 4명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전원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3일 1심에서 징역 5년~2년이 선고된 김수현
피고인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형법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자격정지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피고인 4명에게 징역 3년~징역 1년6월을
선고한후 법정구속 했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 85년 9월 당시 민청련의장이던 김씨를 남영동 대
공분실로 연행, 11차례에 걸쳐 불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원 실형
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발행일 : 93/08/24

제 목 : [횡설수설]

"사람이 그들때같이 모여들고 기마대순사가 늘어서고, 우는 사람, 아리랑을 합창하는 사
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말은 15세의 어린 나이에 춘사 나운규가
만든 영화 '아리랑'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신일선의 회고다.

1926년10월1일 단성사에서 첫상영된 '아리랑'은 기미독립만세운동으로 일경에 투옥, 혹독
한 고문으로 정신이상인 주인공이 일경 앞잡이를 낮으로 찢어 죽이고 포승에 묶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내용의 영화다. 이 영화의 제작 주연자인 춘사와 한 고향친구로 '윤봉길의
사' '유관순'등을 만든 윤봉춘역시 한국 영화의 개척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정부는 이
번 광복절에 두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인정, 뒤늦게나마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다.

몇년전 서울 한 고서점에서 자료수집가 김종욱씨에 의해 발견된 나운규의 미완성전기에 의
하면 한만국경 회령출신인 두사람은 15세때 비운의 조국애기를 담은 연극 '이전반'을 만들
어 공연, 일현병대에 투옥됐다가 감옥을 탈출, 함께 북간도에서 활약하는 항일운동자들간의
비밀연락임무를 맡았다. 이때 나운규는 김형중이란 분을 만나 1919년4월 회령독립만세시위의
전열에 섰다가 쫓겨 용정지구 이흥래대장의 독립군에합류해 나운규와 회청선철도터널폭파
와 군자금모금, 밀정잡기등 활동을했다. 두사람은 배신한 동료의 밀고로 일경에 잡혀 1년6개
월을 복역,출소후 민족혼을 일깨우는 영화인으로 평생을 바쳤다. 예술인으로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사람은 광복군으로 활동한 원로화가 최덕휴이후 영화인으로는 처음이란다. 새삼 고
개가 수그러진다.

발행일 : 93/08/13

제 목 : [TV채널] KBS1 '다큐극장'... 박종철군사건 재조명

KBS-1TV '다큐멘터리극장'은 87년 민주항쟁의 시발점이 됐던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을 재조명하는 '박종철군 사건은폐, 이렇게 알려졌다'를 25일 밤 8시 방영한다.

..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이 사건은 당시의 많은 의문사중 하나로 분할됐다. 결국 부도덕한 정권의 은폐노력에 맞서 용기있게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 덕분에 박종철 고문사건 진상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이 프로는 박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찰의 음모와 움직임, 이에 굴하지 않고 사망경위를 제대로 밝히려는 당시 부검의였던 황적준 박사의 일기장과 인간적 고뇌에 가득찼던 모습을 추적한다.

고문경찰과 같은 교도소에 있었던 이부영의원이 범인축소는폐사실의 의무로 알리고 제보를 받은 천주교사제단이 이 사실을 폭로하기까지의 과정도 재구성한다.

발행일 : 93/07/25

제 목 : 박종철군 치사 '신원권' 첫 제기

서울고법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족권의 하나로 '신원권' 개념을 최초로 제기해 대법원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14일 박군의 아버지 박정기씨등 유족 5명이 국가와 고문경찰관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민창당시 치안본부장 등이 박군의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한 것은 가족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할 '신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진상은폐' 부분에 대한 국가 등의 민사상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연으로 맺어져 고통을 함께 하는 가족공동체에서 가족 등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법철차에 호소해 그 원한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는 죽음을 당한 가족의 내부관계에서는 의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침해해서는 안될 권리로 편의상 '신원권'이라 정의한다"고 판시했다.

박군 고문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고문치사와 진상은폐에 대한 책임 등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진상은폐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외에 민사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왔다.

1심에서는 진상은폐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 2천8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으나 법률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배상액수에 대해선 "국가와 고문경찰관 등은 박군유 판결했다.

이는 지난 89년 11월 1심에서의 1억3천만원 배상판결보다 4천여만원 늘어난 것이다.

< 김 정 훈 기자 >

발행일 : 93/07/15

제 목 : [단신] '박종철 치사사건' 다큐극장 방영 연기

KBS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11일 1TV '다큐멘터리극장'을 통해 방영키로 했다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로 방영일자를 연기.

KBS 한 관계자는 고박종철 사건을 다룬다는 사실을 입수한 경찰청 간부들이 찾아와 <>이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돼 있는 전직경찰간부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방영연기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발행일 : 93/07/13

제 목 : ~~올해안에 고문방지협약 가입... 한외무~~

한승주의무장관은 15일 오후 오스트리아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인권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삼대통령은 신의교정책 발표에서 인권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 한국은 인권보장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고문방지협약에 올해안으로 가입하고 인권관련 모든 협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인권회의의 이틀째 회의에서 "한국가의 특수상황이 그 국가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서 지역적 국가적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나 역사는 특수상황이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그러나 다른 국가와 지역의 인권문제에 대한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는 민족주의라는 또다른 강력한 감정을 촉발,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행일 : 93/06/15

제 목 : [국제톱] ~~"미국, 인권탄압국가들 군사지원"... 국제사면위~~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는 8일 미국이 지금까지 반체제인사들을 고문하거나 감금하는등 인권유린을 일삼아온 이스라엘과 이집트등 전세계 21개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왔다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그동안 대대적인 인권탄압을 자행해온 수많은 국가들에게 군사훈련및 자금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지원은 민간인과 정치범들을 제거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와관련, 매년 18억달러및 13억달러규모의 원조를 받고있는 미국의 최대 군사지원 수혜국인 이스라엘과 이집트등 2개국의 인권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양심적인 반체제인사들을 고문하거나 학대해왔으며 특히 이츠하크 라빈총리내각이 출범한 이후 점령지등의 인권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훈련 및 경제지원을 받고있는 이스라엘군이 강경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군대를 동원해 민간인을 사살하거나 가옥을 파괴하는 사례가 금년초부터 부쩍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집트도 이슬람교원리주의자들을 초법적으로 다뤘으며 구타나 거꾸로 매달기 머리나 성기 등에 대한 전기고문등의 비인간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단체는 이밖에 바레인 볼리비아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그리스 과테말라 포르투갈 세네갈 태국 필리핀 튀니지 터키등 19개국도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아가며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저명학자및 기업인들로 구성된 '일본 국제포럼'은 8일 미국은 아시아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인권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클린턴 미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갱신여부를 인권문제와 연계시킨것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수 많은 아시아국가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행일 93/06/10

... (Faint, mostly illegible text follows, appearing to be a news report or document body.)

署長·수사課長 소환조사

1988 1월 10일 10대 拷問 사건

【水原=尹貞相기자】水原지검은 16일 오후 고검파출부인인 김명우(53)를 수사과장인 김태환(53)과 수사과장인 김태환(53)을 소환하여 10대 拷問 사건에 관하여 조사했다. 김태환은 16일 오후 8시에 김태환(53)의 부인인 김명우(53)를 소환하여 10대 拷問 사건에 관하여 조사했다. 김태환은 16일 오후 8시에 김태환(53)의 부인인 김명우(53)를 소환하여 10대 拷問 사건에 관하여 조사했다.

署長 등 職位해제

【水原=尹貞相기자】水原지검은 16일 오후 고검파출부인인 김명우(53)를 수사과장인 김태환(53)과 수사과장인 김태환(53)을 소환하여 10대 拷問 사건에 관하여 조사했다. 김태환은 16일 오후 8시에 김태환(53)의 부인인 김명우(53)를 소환하여 10대 拷問 사건에 관하여 조사했다.

拷問경인관들 구속

조선 署長 등 축소報告도 조사

1988 1월 17일 10대 腦死 사건

【水原=尹貞相기자】수원지검은 16일 오후 10대 拷問 사건에 관하여 조선 署長 등 축소報告도 조사했다. 조선 署長 등 축소報告도 조사했다. 조선 署長 등 축소報告도 조사했다.



외상

몸쓸 세상이야

19년 이전의 신간체 사용은...
 이가 나쁜 것이었으니...
 몸쓸 세상이야...
 몸쓸 세상이야...
 몸쓸 세상이야...

고문腦死상태의 명군 어머니 한탄

명군 어머니의 고문...
 명군 어머니의 고문...
 명군 어머니의 고문...
 명군 어머니의 고문...
 명군 어머니의 고문...

拷問가담 警官

쉬명 추가 拘束

水原署長도 재조사
 (水原=署) 순도...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이 사건은...

1988년 2월 11일
 (주)한국방송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1-1호
 전화) 712-2125 (스) 712-2128

스승추모특집

“腦死아들심장 기증 卅生命 돕고파”

동아 1988 2. 11

「고문死境」明魯烈군 가족 박혀



明魯烈군
 水原市華西(西)의 오모니 李
 玉順씨(59)는 지금도 말도
 안지 못했다.
 40여명의 민회가 열렸도
 지않고 주영자실명선영의의
 인양이후기가 쓰워진 명구열
 들의 불행 비비던 추씨는 심



다른 사람이라도 살릴수 있을까해서 아들의 심장을 기
 증하느라 했다고 명구열군.

「아고 魯烈이구 이미 죽인
 복수였디다. 다른사람이라도
 살려드려요. 魯烈의 심장을
 기증하느라 했을디고. 20여명
 이 모버북 잇디기 잇지져. 아
 버지가 잇디노 모버북 죽
 어가크었다고 생각하디.」水
 原市華西(西)의 오모니 李玉
 順씨(59)는 지금도 말도 안
 지 못한다. 40여명의 민회가 열
 려졌도 지않고 주영자실명선
 영의의 인양이후기가 쓰워진
 명구열의 불행 비비던 추씨는
 심장을 기증하느라 했다고 명
 구열군. 水原市 華西(西)의 오
 모니 李玉順씨(59)는

“다른 사람에게라도 새 삶의 빛을...”

의 제화, 작면 11월 고인양
 고사의 음시켰으나 나반했
 으론보이지기술을 배우
 다며 화의를 종로했다디지.
 40여명의 민회가 열렸도
 지않고 주영자실명선영의
 의의 인양이후기가 쓰워진
 명구열의 불행 비비던 추씨
 는 심장을 기증하느라 했
 다고 명구열군. 水原市 華
 西(西)의 오모니 李玉順
 씨(59)는 지금도 말도 안
 지 못한다. 40여명의 민회
 가 열렸도 지않고 주영자
 실명선영의의 인양이후기
 가 쓰워진 명구열의 불행
 비비던 추씨는 심장을 기
 증하느라 했다고 명구열
 군.

또 아들간호를위해 지난24
 일 京畿道安山시 牛車院의
 영구실명선영의의 인양이후
 기가 쓰워진 명구열의 불행
 비비던 추씨는 심장을 기
 증하느라 했다고 명구열
 군. 水原市 華西(西)의 오
 모니 李玉順씨(59)는
 지금도 말도 안지 못한다.
 40여명의 민회가 열렸도
 지않고 주영자실명선영의
 의의 인양이후기가 쓰워진
 명구열의 불행 비비던 추
 씨는 심장을 기증하느라
 했다고 명구열군.

「아고 魯烈이구 이미 죽인
 복수였디다. 다른사람이라도
 살려드려요. 魯烈의 심장을
 기증하느라 했을디고. 20여
 명 이 모버북 잇디기 잇지
 저. 아버지가 잇디노 모버
 북 죽어가크었다고 생각하
 디.」水原市 華西(西)의 오
 모니 李玉順씨(59)는
 지금도 말도 안지 못한다.
 40여명의 민회가 열렸도
 지않고 주영자실명선영의
 의의 인양이후기가 쓰워진
 명구열의 불행 비비던 추
 씨는 심장을 기증하느라
 했다고 명구열군. 水原市
 華西(西)의 오모니 李玉
 順씨(59)는

〈道具機기자〉

또 한生命 앗아간 拷問

전체의 머진 기분이야 거스르려
중 었진 사모도 의결 500만호 생
전다. 한편 사물 700여 종과 생
판은 100여 종과 100여 종과 생
간 700여 종과 100여 종과 생
전체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이들의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이들의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이들의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88

전체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이들의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500만호 기분이야 거스르려

독립의정, 류익환이 되어 유출되게되다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02-1000)
 서울특별시 (02-1000)
 서울특별시 (02-1000)

소수위원회

명철권 拷問 사망
 민주시 조사반 구성
 민주주의 8월 7일 결성
 이념 사면안 明철권사건
 진정서를 위해 陸運相의
 5월 12일 88년 5월 12일
 1988년 5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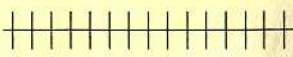
홍소 18평방방

민주 인공 인공

명철권 장례 치러
 1988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02-1000)
 서울특별시 (02-1000)
 서울특별시 (02-1000)

명권신장 10대에 이시
 1988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02-1000)
 서울특별시 (02-1000)
 서울특별시 (02-1000)

서울특별시 (02-1000)
 서울특별시 (02-1000)
 서울특별시 (02-1000)
 서울특별시 (02-1000)
 서울특별시 (02-1000)



고문백서 신문 스크랩 자료 목록

입력일: 1994년 10월 4일

73년도

11.26: 국제사면운동위원회 60개국 실태보고서

83년도

4.5: 고문방지 특별법 제정논의 (민한당)

86년도

7.7: 고문백서 내기로 (민추협-상임위)

8.14: 정당집회방해는 공권력 남용 (고문성고문 용공조작 범국민폭로대회)

8.14: 민주 사무실 수색

8.14: 고문폭로대회 강행

8.15: 폭로대회 신민당주변 차단

10.29: 중공, 고문근절 지시

87년도

1.9: '전세계 고문 발간' (정철용)

1.15: 횡설수설 (1.19, 22)

1.20: 고문추방 긴급 좌담회

1.21: 고문근절 새입법 검토

1.22: 고문의 종식을 위하여 (사설)

1.23: 변협 고문공청회

1.23: 전문가들이 말하는 고문방지의 길

1.24: 각국 고문방지제도

1.26: 박종철 사건과 기본권 (이희창 변호사에 듣는다)

1.26: 임의동행불응 국민운동전개 (이민우 신민당총재 회견)

1.27: 인권침해와 도덕적 자각 (칼럼)

1.28: 대한변협과 고문공청회

1.28: 경찰서마다 고문신고센터 설치 (정호용 내무장관)

1.28: 고문추방 범국민기구를 만들자 (변협공청회 각종 사례 대책)

1.31: 고문추방 국민운동본부 추진

2.3: 영장없는 연행금지 (치안본부 고문근절대책 발표, 이영욱 본부장)

2.4: 정부 인권특위 신설

2.4: 경찰의 고문근절대책 (사설)

2.12: 불법연행 고문신고센터 설치 (739-2581~3, 지방변호사회)

2.25: 칠레, 고문자행폭로 (유엔 인권위)

3.18: 고문미술전집회 경찰 저지로 무산

3.19: 고문추방운동 앞장 (KNCC 성명)

3.27: 고문 뿌리뽑자 (대한변협)

3.30: 고문추방본부 설립 논의 (변협 회장단 회의)

6.1: 고문추방 계기로 삼자 (박홍수, 동아시론)

6.8: 횡설수설

88년도

- 1.16: 경찰 고문행위 여전하다 (사회면)
- 1.22: 고문신고센터 가혹행위 6건 확인 (사회면)
- 1.31: 새시대 바람, 사법부 공권력 진통
- 2.2: 고문청산을 위한 세가지 시안 (박승저, 동아시론)
- 4.8: 국제고문방지협약 가입 검토
- 7.8: 명노열군 고문치사 경관 3년 실형
- 12.20: 반고문의 절규 (반고문 반폭력반대 인간선언대회)

89년도

- 9.8: 증견보전 어떻게 처리될까 (신문해설)
고문당한 사람의 고통과 배상 (사설)
- 10.29: 검찰 고문 책임 물으라 (사설)
- 12.16: 이한열 추모집 발간

90년도

- 9.26: 고문자는 끝까지 추적하자 (동아, 사설)
- 11.8: 고문진상규명 요구 (사노맹 사건, 전민련 민가협 성명)

91년도

- 1.31: 고문 (동아, 횡설수설)
- 8.1: 고문하는 검찰 (동아, 사설)

92년도

- 8.15: 형사법의 이념과 현실 (변협 심포지움)

93년도

- 5.3: 고문방지 유엔협약 가입 추진

문건목록

- 과거청산과 불처벌 문제 (박원순 변호사)
- 조사에 있어서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광수, 연대박사논문)
- 광주오월민주항쟁의 심리적 충격 (오수성 교수, 전남대 심리학)
- 유엔 고문방지협약 자료
- 고문피해자 치료에 관한 자료
- 국제고문희생자 재활협회 자료
- 삼청교육대 자료

사례보고목록

75년도

유정식 (안동교도소, 국보)

77년도

김환진 (고교교사, 사망, 강제연행)

80년도

석달운 (전주 소, 간첩접견혐의)

서경원 (국회의원, , 밀입북)

임기윤 (목사, 사망, 강제연행)

이충섭 (학생, 교내낙서사건)

81년도

박동원 (광주 소, 진도간첩단사건)

최영미 (학생, 고문후유증, 편지사건)

82년도

김정목 (대구 소, 남북어부조작간첩사건)

김정호 (//)

83년도

정영 (대고 소, 남북어부조작간첩사건)

이상철 (광주 소, 남북어부조작간첩사건)

함주명 (, 간첩조작사건)

84년도

조봉수 (안동 소, 간첩조작사건)

85년도

김성만 (, 구미유학생간첩조작사건)

황대권 (//)

이장형 (광주 소, 방북혐의)

86년도

박인균 (살해기도사건)

윤여범 (, 집시법위반혐의)

강환웅 (학생, 고문후유증, 신길동 학생시위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87년도

김근조 (사망, 토지매입사건으로 연행)

박종철 (사망, 물고문사건)

88년도

- 1월: 명모근 (사망, 수원 여고생피살사건)
- 4월: 이신범 (민주발전연구소, 긴급조치위반혐의-71~75, 전기.물고문)
- 12월: 권오정 (시민, 철도용의자혐의, 고문)

89년도

- 1월: 박충렬 (시국사범, 반제동맹사건)
- 4월: 황중수 (노동자, 마창지역시위관련, 전자봉고문)
- 6월: 방양균 (서경원의원 방북사건관련)
- 8월: 김정환 (국민대생 생매장사건, 프락치강요)
- 9월: 박명건 (시민, 재정신청사건, 세관원에게서 물고문)
홍성담 (민중화가, 국보법)
- 10월: 고교생 3명 (노동관련포스터 부착중 연행, 고문)
이인달, 이재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시민폭행치사사건)

90년도

- 1월: 차일환 (민중화가, 고문주장)
김진기 (시민)
- 4월: 고교생 (폭력조직 수사중 전자봉고문)
- 6월: 박상건 (시민)
- 9월: 판사 (고문혐의 전보안사장교 법정구속 건, 전화고문)
- 11월: 현정덕, 이성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

91년

- 4월: 권 모씨 (시민, 연쇄방화사건 용의자)
- 6월: 박득주 (조국통일촉진그룹사건, 국보법)
- 7월: 조국신 (소매치기혐의)

92년도

- 5월: 이동근 (시민, 강도상해혐의)
조항기 (시민, 부인살해혐의)
- 6월: 김성민 (시민, 살인사건용의자)
- 8월: 신정식 (시민, 상습절도혐의)
이기웅 (자살, 가혹행위)
김기웅 (순경, 애인살해혐의)

93년도

- 7월: 김종경 (시민, 화성연쇄살인사건용의자)

<한겨레 신문>

83년도

- 3.28: 폭행수사 철저히 규명(동아)
- 28: 두경관 가세했다 -한일합섬 김이사(동아)
- 28: 폭행한 경관구속 - // (동아)
- 30: 폭행경관 엄벌하라 - // (동아)

87년도

- 1.17: 고문치사 유족배상금, 때린 경관이 물어라 - 김근조 사건

88년도

- 10.21: 발가벗긴채 물고문, 전기고문 -민추위 사건85, 문용식
-보임 다산 사건86, 김상복, 고경대, 고경미
-전민련82, 민추위85, 박문식
-전노련 사건81, 이태복
-민청련 사건85, 이을호
-가협 계엄령포고위반령 사건80, 노향기
-삼민투 사건85, 허인회

89년도

- 5.3: 가혹행위사실 심증근혀 -전자봉 피해자 6명
- 5.21: 전자봉고문관련 창원서장 고발
21: 창원경찰서장 고발
24: 전자봉고문 경찰 처벌요구
- 8.25: 이길재, 방양군씨 고문
25: 잇다른 고문수사 주장 -방양군씨
25: 서의원 방북 6월에 알아 -방양군씨
26: 고문과 조작, 평민당 주장 -서의원 사건관련자 진술내용공개(동아)
26: 고문사실 폭로했다고 보복고문 -차일환씨
27: 양심수석방 고문중지 촉구
29: 고문까지 5공으로 돌아가는가
29: 잠안재우기 고문 뿌리뽑아야 -홍성담, 차일환, 정하수, 서경원, 이길재, 방양군, 박충렬
31: 고문상처 증거보전 신청 -화가 홍성담
31: 방양군씨 신체검증하기로
- 9.5: 왼쪽 귀, 무릎등 상처 흔적 확인 -홍성담
6: 홍성담, 방양군씨 신체감정
7: 홍성담씨 고문 신체감정, 서의원 비서관 방양군씨 신체감정
13: 고문시비 쟁점 공방 치열할듯 -서의원 사건(한국)
13: 수사과정서 가혹행위 -서의원 사건관련 정성현, 이길재, 고금숙
23: 홍성담씨 안기부 고문 확인
28: 물고문 세관원 재판 회부 -박명률씨

- 30: 납북귀환 어부 무죄확정 -김성확씨
- 10.18: 방양균 피고 구타고문 가능성 있다(경향)
- 19: 방양규씨 상처 고문 가능성
- 29: 뇌물혐의 공무원 검찰서 가혹수사 -이인원씨
- 11.3: 김군성씨 7명이 고문 -차일환씨 첫공판때 증인
- 12.15: 이창국장로 간첩사건 안기부서 고문조작
- 16: 안기부 고문 당해 유산 -김영애씨
- 25: 시국사범 고문 피해 폭로 잇따라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음모 사건80, 황인오. 권운상
-제현의회 사건86, 김성식. 윤성구. 김한
-서노련 사건86, 김문수

90년도

- 1.9: 차일환씨 사건 민가협에 협박전화
- 17: 불법연행 3억대 각서받다 -3년만에 밝혀진 고문수사
- 17: 2억 5천 지급약정서 받아내 -시민불법연행 고문
- 3.15: 연예PD 검찰서 고문
- 23: 김현장씨 부부 구속관련, 서베를린 시장 우려 표명
- 4.5: 경찰이 전자봉고문 -고교생들
- 5: 전경이 전자봉고문 -조직폭력배 고교생
- 7.25: 가혹행위 경관기소여부 관심쏠려
- 12.20: 안기부 시국관련 피의자 고문-자민통, 김요섭(한림대). 송갑섭(전남대). 김기수(경희대 경제). 최원국(외대 영어). 전상현(중대 철학). 김지현(경기 학원 사학)
- 22: 안기부서 고문받아 -사노맹, 남태현

91년도

- 1.13: 안기부 사노맹피의자 고문
- 15: 사노맹, 자민통 구속자 안기부 고문 허위자백(동아)
- 16: 안기부 구타흔적 확인, 자민통 사건 -김요섭씨
- 16: 안기부 고문 자민통 구속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 2.13: 건설부국장 검찰서 구타의혹 -이동성씨(조선)
- 13: 검찰 건설부국장 구타의혹(동아)
- 23: 고문한 전 보안사 장교 보석
- 3.6: 물고문 세관원 2명 5년구형
- 9: 안기부서 고문 박노해씨 부인 주장(조선)
- 4.14: 경찰이 물고문 말썽 -화곡동 연쇄방화30대 용의자(조선)
- 14: 연쇄방화용의자 경찰 물고문 주장(경향)
- 15: 석연찮은 방화범 자백(중앙)
- 5.15: 밀실 구타. 잠안재우기 갈수록 교활
- 15: 고문실대 -사노맹, 현정덕. 강제윤/ 자민통, 김요섭
- 7.31: 검찰고문 자백무죄 -소매치기혐의 2명 원심깨고 석방, 조국신씨
- 31: 검찰 가혹수사 인정 무죄선고(조선)
- 8.30: 경찰 58% 피의자 고문 불가피(한겨레, 이삭)
- 9.18: 수사관 가혹행위엔 관용 -126명 고소. 고발에 구속 한명도 없어(중앙)
- 10.27: 수감자 5일째 쇠창살에 매달아 -쌀값 제값받기 운동한 허윤하씨

- 29: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충격
- 29: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파문 번져
- 30: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경찰관 2명 직위해제
- 30: 미결수 가혹행위 경관들 직위해제(중앙)
- 31: 정주 경찰서장 서면경고
- 11.3: 폭력감방 농민운동가 보석
 - 7: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한겨레, 더불어 생각하며)
- 12.16: 경찰이 허위자백 강요 -검찰측 증인연행 가혹행위(중앙)
 - 17: 진술번복 강요, 경관 5명 소환(중앙)
 - 17: 경찰이 진술번복 강요

92년도

- 5.17: 애꿎은 시민 물고문 -이동근씨, 강도상해혐의
 - 22: 고문경관 불구속처리 - //
 - 22: 자백강요 물고문 -조항민씨, 피살주부 남편 용의자로 몰아(세계)
 - 23: 주부변사 사건 가혹행위 경관 둘 영장(한국)
 - 23: 물고문 경관 2명 형사 처벌키로
 - 24: 물고문 경관 2명 구속
 - 28: 살인혐의 무죄확정 20대, 경관고문 손배소송 -진현관씨, 비디오가게 모녀살해사건
- 6.4: 한국고문희생자원호회 결성 -미국서.. 인권운동가 참여
 - 27: 검찰이 6시간 물고문 -김중씨, 부산 밀수혐의 선원
 - 28: 가혹행위 경관 넷 고소 -김성민씨, 살인혐의 무죄확정 20대(조선)
 - 28: 경찰 물고문으로 살인방조작 -아가방 살인사건
 - 30: 살인고문조작 고소관련, 경찰청 감찰반 자체조사
- 9.5: 경찰 참고인 전자봉고문 -절도범 혐의(중앙)
 - 8: 안기부서 참고인 가혹행위 - 전희식씨, 전 민중당대표 김낙중씨 사건 관련
- 10.20: 검찰 인신구속 남용 여전 -법무부 자료, 고문등 가혹행위 고발맨 냉담(90~92 무죄신고 1800건)
- 12.20: 고문인정 무죄 선고 -함광웅씨, 살인폭력배 혐의(한국)

93년도

- 5.3: 고문방지협약 가입 방침 -비준안 9월 국회제출(중앙)
- 6.16: 고문방지협약 연내 가입 추진 -한외무, 세계인권회의 기조연설(한국)
- 7.20: 눈물마저 빼앗아버린 고문망령 -문국진씨(한겨레, 동네방네)
- 9.16: 유신아래 쓰러져간 남편 원혼 달래주오 -70년대 유신때 숨진 고교교사 아내 탄원
 - 20: 고문피해 잇단 소송 준비 -5.6공 피해자들 정신질환. 자살등 후유증 심각
 - 27: 고문방지협약 가입 -11월말 신청서 제출. 내년 발효(중앙)
 - 24: 검사가 가혹행위, 피해자에 3천만원 배상
 - 25: 검찰 고문 허위자백 국가 배상해야 -김학동씨, 불법감금피해 택시운전사 3천만원 지급
- 10.3: 밀수혐의 강압수사 -보석상 여종업원 2명(경향)
 - 13: 고문수사 무죄운전사, 담당 검사등 7명 고소(세계)
 - 15: 살아남은 게 죽은 것만 못합니다 -최영미씨
 - 16: 경찰조사 받다 정신질환, 2억 소송제기 -문국진씨
 - 21: 간첩혐의 불법연행 안기부서 가혹행위 -김삼석씨(한국)

- 21: 안기부서 고문 . 성추행, 수사관 전원 고발 -김삼석. 은주 남매
- 11.9: 국가상대 잇단 손배소송 -구원희씨. 봉천동대로변 살인사건
 - 이귀남씨. 사문서 위조혐의
 - 문국진씨. 시국사범
- 12.3: 강희철씨 고문 간첩조작 -제주 제야단체 석방요구
- 29: 고문보상법 제정 청원 -피해자 가족 천여명. 박종철 부친등(중앙)
- 29: 사상범 고문해도 괜찮다 -최형우장관 말지 대담 파문. 제야단체 강력반발 요구

94년도

- 1.10: 10년전 살인누명 고문후유증 폐인 - 김시훈씨(문화)
- 13: 고문경관 수사소홀 국가상대 손배소송 - 박충렬씨외3명, 반제동맹사건86
- 19: 살인혐의 2심서 무죄선고
 - 피의자 '물고문에 구타당했다'(동아-일반시민)
- 4.12: '고문추방위해 제도개선율'
 - 피해자 사례보고회(한겨레)
- 7.5: 고문혐의 안기부원 증거 없다 무혐의(한겨레)
 - 검찰 민중미술가 차일환씨 고소 6명 혐의 입증 어려워
- 7.8: 고문피해자 66명 수사관 집단고소(동아)
 - 백태웅씨 등 48명 복역중
 - 함주명씨 등 장기수 20명
 - 송갑석씨 등 전대협 8명
 - 백태웅씨 등 사노맹 관련자 6명
 - 손병선씨 등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20명이다.
- 7.8: 고문수사관 무더기 고소 의미 (한겨레)
 - 함주명씨 등 장기수 20명
 - 송갑석씨 등 전대협 8명
 - 백태웅씨 등 사노맹 관련자 6명
 - 손병선씨 등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20명이다.
 - 국민대생 매장사건 김정환씨
 - 자민통 사건 김기수씨 등
- 7.8: 시국사범 고문수사관 고소 의미(한겨레)
 - '과거 관행 묻어두면 내일에도 계속될 것'
- 9.4: 5,6공 고문피해자 9명 공소시효에 문제제기(한겨레)
- 9.23: 고문방지협약가입 의결(한겨레)

신문기사 스크랩 83-86

82년

11.18 고문수사 또 무죄(동아)

83년

4.10 만물상 (조선)

6.19 고문유행(조선-홍콩 스탠다드지)

12.11 강압수사에 상처입은 인권-이수원씨 외 3명 살인혐의 옥살이(조선)

12.27 인권조사 새해에 뿌리내릴까-고문방지특가법

84년

5.23 조사과정 고문 밝힐 수 있다(조선-뉴욕 로이타연합특약)

85년

6.7 검찰 고문경관 기소유예(동아)

6.8 고문으로 입건된 경찰 기소유예 처분(조선)

10.5 민청련 김근태씨 '고문'보전신청(조선)

10.17 고문증거보전 기각(조선)

10.27 고문조사특위 제안(조선)

11.11 고문 등 즉각 중단촉구(조선)

11.15 고문주장 반박자료작성(동아)

12.31 김근태씨 고문확인 경찰관 8명 고발-변협 인권위(조선)

12.31 김근태씨 고문혐의 경관 8명 고발(한국)

86년

1.23 만물상(조선)

1.30 민주위 가족들 내무장관 등 고소(조선)

1.30 김근태씨 부인 등 가족 내무장관 고소(한국)

2.14 고문관련 교회집회 경찰 저지로 못열려(조선)

3.10 경관 3명 조작청부수사(동아)

3.11 경찰이 돈받고 청부조사(조선)

5.20 구속 서노련위원 수사중 고문당해(조선)

6.8 인천사태 구속자들 경찰 고문에 허위자백(한국)

6.17 인천사태 관련 구속자들 경찰 폭행으로 허위자백-신민조사보고서 발표(중앙)

6.17 뇌물받고 고문 수사 경관 2명 영장

6.18 특수절도 2심서 무죄, 서울고법 경찰 자백강요 사실 밝혀내(경향)

6.20 반박문 흥분기색역력(조선)

6.24 서노련 관련 15명 가혹행위 조사를 (한국)

6.24 서노련 간부에 가혹행위했다(동아)

6.26 구속여성 폭행말라-여성단체서 성명

6.27 인천사태 구속자가족 고문책임자 처벌요구(조선)

6.27 여성 고문중지 요구, 16개 여성단체농성(조선)

7.1 가혹행위로 감형당한 경관 불복소송서 패소(중앙)

7.3 구속 근로자 신문중 추행(중앙.한국)

7.3 근로자 가족 30명 부천경찰서 농성(중앙.조선)

성적 폭행당해, 해고 근로자 경관고소

- 7.5 명예훼손했다, 피소 경관 맞고소
- 7.5 유신때 버릇 아직 남아있다
- 7.5 신민, 인권탄압 강력대처키로(조선)
- 7.6 수사관 6명 고발-권양 추행사건변호인단(조선)
- 7.7 조사 경관이 성폭행-변협 인권 고발(한국)
- 7.6 신민 10인 조사단, 부천여대생 사건(조선)
- 7.5 구치소 가혹행위, 신민서 조사착수(중앙)
- 7.6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부천 성고문사건(사설, 중앙)
- 7.9 성폭행사건 진상 공개 조사(중앙)
- 7.10 성폭행(여기자칼럼-장명수, 한국)
문경장 2차 소환 조사(조선)
- 7.13 부천서 고문조사 특별검사 임명을 (조선)
지평선(한국)

8월

- 8.7 경찰 고문조각기 사용유해(동아)
- 8.8 고문으로 인건물 경찰 시종욱에 처분(조선)
- 8.9 변형된 신민서 고문조각기(조선)
- 8.11 고문당자등에 처분(조선)
- 8.12 고문조사유기(동아)
- 8.14 고문 등 조사 중단착수(조선)
- 8.15 고문수장 반마사료자성(동아)
- 8.31 김근태씨 고문확인 경찰관 8명 고발-변협 인권위(조선)
- 8.31 김근태씨 고문확인 경찰관 8명 고발(한국)

9월

- 9.3 만물상(조선)
- 9.30 민주위 가족들 내무장관 불 고소(조선)
- 9.30 김근태씨 차인 등 가족 내무장관 고소(한국)
- 9.4 고문확인 교회교회 경찰 정지호 불발(조선)
- 9.10 경찰 8명 수사착수(동아)
- 9.11 경찰이 문병고 정부조사(조선)
- 9.10 구속 서노연관련 수사관 고발당할(조선)
- 9.8 인천사태 구속자등 경찰 수감에 항의(동아)
- 9.17 인천사태 관련 구속자는 경찰 폭행으로 뒤따라-신민조사보고서 발표(중앙)
- 9.17 서울발고 고문 수사 경찰 2명 영장
- 9.18 특수철도 2집서 도둑, 서울고법 경찰 자백강요 사실 밝혀내(경향)
- 9.20 반박문 송분기하(조선)
- 9.24 서노연 관련 15명 가혹행위 조사를 (한국)
- 9.24 서노연 간부에 가혹행위했다(동아)
- 9.25 구치여성 폭행당해-여성단체에 상명
- 9.27 인천사태 구속자지속 고문확인자 처벌요구(조선)
- 9.27 여성 고문확인 요구, 10개 여성단체농성(조선)
- 9.1 유족들에게 감행당한 성관 불복소송서 제소(중앙)
- 9.2 남부 사모서 김문관 주형(중앙한국)
- 9.3 김근태씨 가족 영장 부검조각기 농성(중앙조선)

(한겨레 신문)

83년도

- 3. 28: 폭행수사 철저히 규명(동아)
- 28: 두경관 가세했다 -한일합심 김이사(동아)
- 28: 폭행한 경관구속 - // (동아)
- 30: 폭행경관 엄벌하라 - // (동아)

87년도

- 1. 17: 고문치사 유족배상금, 배린 경관이 물어라 - 김근조 사건

88년도

- 10. 21: 발가벗길채 물고문, 전기고문 -민추위 사건85, 문용식
- 전자봉고문 -고문관련 -보림 다산 사건86, 김성욱, 고경태, 고경미
- 전민련82, 민추위85, 박훈식
- 전노련 사건81, 이태복
- 민청련 사건85, 이필호
- 가협 계엄령포고위반명 사건80, 노한기
- 삼민부 사건85, 이원서

89년도

- 5. 3: 가혹행위사실 심증근히 -전자봉 피해자 6명
- 5. 21: 전자봉고문관련 창원지장 고발
 - 21: 창원경찰서장 고발
 - 24: 전자봉고문 경찰 처벌요구
- 8. 25: 이길재, 방양군씨 고문
 - 25: 잇다른 고문수사 주장 -방양군씨
 - 25: 서의원 방북 6월에 알아 -방양군씨
 - 26: 고문과 조작, 평민당 주장 -서의원 사건관련자 진술내용공개(동아)
 - 26: 고문사실 폭로했다고 보복고문 -차일환씨
 - 27: 양심수식방 고문중지 촉구
 - 29: 고문까지 5공으로 돌아가는가
 - 29: 잠안깨우기 고문, 뿌리뽑아야 -홍성담, 차일환, 김학수, 서경원, 이길재, 방양군, 박충렬
 - 31: 고문상처 증거보전 신청 -화가 홍성담
 - 31: 방양군씨 신체검증허기요
- 9. 5: 왼쪽 귀, 무릎등 상처 흔적 확인 -홍성담
 - 6: 홍성담, 방양군씨 신체검정
 - 7: 홍성담씨 고문 신체검정, 서의원 비서관 방양군씨 신체검정
 - 13: 고문시비 쟁점 공방 지열할듯 -서의원 사건(한국)
 - 13: 수사과정서 가혹행위 -서의원 사건관련 정성현 이길재, 고갑숙
 - 23: 홍성담씨 안기부 고문 확인

- 30: 남북귀환 어부 무죄화점 -김성화씨
- 10. 18: 방양관 피고 구타고문 가능성 있다(경향)
- 19: 방양규씨 상치 고문 가능성
- 29: 뇌물혐의 공무원 검찰서 가혹수사 -이인현씨
- 11. 3: 김문성씨 7명이 고문 -차일환씨 첫공판때 증인
- 12. 15: 이장국장도 간접사건 안기부서 고문조작
- 16: 안기부 고문 당해 유산 -김영애씨
- 25: 시국사범 고문 피해 폭로 잇따라 -미스유니버시티대회 폭파음모 사건80, 황인오, 권운상
-재원리처 사건86, 김성식, 권성우, 김현
-서노련 사건86, 김문수

90년도

- 1. 9: 차일환씨 사건 민가헌에 헌박전화
- 17: 불법연행 3억대 각서받다 -3년만에 밝혀진 고문수사
- 17: 2억 5천 지급약정서 받아내 -시민불법연행 고문
- 3. 15: 연애PM 검찰서 고문
- 23: 김현장씨 부부 구속관련, 시배불린 시장 우러 표명
- 4. 5: 경찰이 전자봉고문 -고교생들
- 5: 전경이 전자봉고문 -조직폭력배 고교생
- 7. 25: 가혹행위 경관기소여부 관심출려
- 12. 20: 안기부 시국관련 피의자 고문-차민통, 김요섭(한림대), 송갑섭(전남대), 김기수(경희대 경제), 최원국(외대 영어), 전상현(중대 철학), 김지현(경기 화원 사학)
- 22: 안기부서 고문받아 -사노맹, 남태현

91년도

- 1. 13: 안기부 사노맹피의자 고문
- 15: 사노맹, 자민통 구속자 안기부 고문 허위자백(동아)
- 16: 안기부 구타흔적 확인, 자민통 사건 -김요섭씨
- 16: 안기부 고문 자민통 구속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 2. 13: 건설부국장 검찰서 구타의혹 -이동성씨(조선)
- 13: 검찰 건설부국장 구타의혹(동아)
- 23: 고문한 전 보안사 장교 보석
- 3. 6: 물고문 새관헌 2명 5년구형
- 9: 안기부서 고문 박노해씨 부인 주장(조선)
- 4. 14: 경찰이 물고문 말짱 -화곡동 인체빙화30대 용의자(조선)
- 14: 연쇄방화용의자 경찰 물고문 주장(경향)
- 15: 식연잡은 빙화범 자백(중앙)
- 5. 15: 밀실 구타, 좌안재우기 갈수록 교활
- 15: 고문실태 -사노맹, 원정덕, 김재윤/ 자민통, 김요섭
- 7. 31: 검찰고문 자백무죄 -소매치기혐의 2명 원심재고 석방, 조국신씨
- 31: 검찰 가혹수사 인정 무죄선고(조선)
- 8. 30: 경찰 58% 피의자 고문 불가피(한겨레, 이삭)
- 9. 18: 수사관 가혹행위엔 관용 -126명 고소, 고발에 구속 한명도 없어(중앙)

- 29: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중격
- 29: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파문 민서
- 30: 농민운동가 가혹행위 경찰관 2명 직위해제
- 30: 미결수 가혹행위 경찰관들 직위해제(중앙)
- 31: 성주 경찰시장 시면경고
- 11. 3: 폭력감방 농민운동가 보석
 - 7: 갈수록 악화되는 개소지 인권(한겨레, 더불어 생각하며)
- 12. 16: 경찰이 허위자백 강요 -김철추 증언연행 가혹행위(중앙)
 - 17: 진술번복 강요, 경관 5명 소환(중앙)
 - 17: 경찰이 진술번복 강요

92년도

- 5. 17: 애꿎은 시민 물고문 -이동근씨, 강도상해혐의
 - 22: 고문경관 불구속처리 - //
 - 22: 자백강요 물고문 -조항민씨, 피살주부 남편 용의자로 붙임(세계)
 - 23: 주부변사 사건 가혹행위 경관 둘 영장(한국)
 - 23: 물고문 경관 2명 형사 처벌기도
 - 24: 물고문 경관 2명 구속
 - 28: 살인혐의 부리확성 20대, 경관고문 손매소송 -진현관씨, 미디어가게 모녀살해사건
- 6. 4: 한국고문희생자원호회 결성 -미국시... 인권운동가 참여
 - 27: 경찰이 6시간 물고문 -김중씨, 부산 밀수혐의 실형
 - 28: 가혹행위 경관 넷 고소 -김성민씨, 살인혐의 부리확성 20대(조선)
 - 28: 경찰 물고문으로 살인방조작 -아가방 살인사건
 - 30, 살인고문조작 고소관련, 경찰청 김철만 자체조사
- 9. 5: 경찰 참고인 전자봉고문 -전도민 혐의(중앙)
 - 8: 안기부서 참고인 가혹행위 -전희희씨, 전 반공당대표 김낙중씨 사건 관련
- 10. 20: 김철 인신구속 남용 여건 -법무부 자료, 고문등 가혹행위 고발한 명단(90~92 부죄신고 1800건)
- 12. 20: 고문인정 부죄 신고 -함광웅씨, 살인복력대 혐의(한국)

93년도

- 5. 3: 고문방지협약 가입 방침 -비준안 9월 국회제출(중앙)
- 6. 16: 고문방지협약 연내 가입 추진 -한외무, 세계인권회의 기조연설(한국)
- 7. 20: 눈물마저 빼앗아버린 고문망령 -문국진씨(한겨레, 동네방네)
- 9. 16: 유신아래 쓰러져간 남편 원혼 달래주오 -70년대 유신때 숨진 고교교사 아내 탄원
 - 20: 고문피해 잇단 소송 준비 -5.6공 피해자들 심신질환, 자살등 후유증 심각
 - 27: 고문방지협약 가입 -11월말 신청서 제출, 내년 발효(중앙)
 - 24: 검사가 가혹행위, 피해자에 3천만원 배상
 - 25: 검찰 고문 허위자백 국가 배상해야 -김희동씨, 불립감금피해 택시운전사 3천만원 지급
- 10. 3: 밀수혐의 강압수사 -보석상 이종언원 2명(경향)
 - 13: 고문수사 부죄운전사, 담당 검사등 7명 고소(세계)
 - 15: 살아남은 게 죽은 것만 못합니다 -최영미씨
 - 16: 경찰조사 받다 정신질환, 2억 소송제기 -문국진씨

- 21: 안기부서 고문, 성추행, 수사관 전원 고발 -김삼석, 유주 남매
- 11.9: 국가상대 잇단 손배소송 -구원희씨, 봉천동대로변 살인사건
 - 이귀남씨, 사문서 위조혐의
 - 문국진씨, 시국사범
- 12.3: 강희철씨 고문 간첩조지 -제주 재야단체 석방요구
- 29: 고문보상법 제정 정현 -피해자 가족 전여명, 박종철 부친등(중앙)
- 29: 사상범 고문해도 괜찮다 -최형우장관 말지 대답 때문, 재야단체 강력민발 요구

94년도

- 1.10: 10년전 살인누명 고문후유증 폐인 - 김시훈씨(문화)
- 13: 고문경관 수사소홀 국가상대 손배소송 - 박종철씨외3명, 민재동맹사건86
- 19: 살인혐의 2심서 무죄선고
 - 피의자 '불고문에 구타당했다'(동아-일간신문)
- 4.12: '고문수방위해 제도개선을'
 - 피해자 사례보고서(한겨레)
- 7.5: 고문혐의 안기부원 증거 없다 부혐의(한겨레)
 - 김철 민중미술가 차별환씨 고소 6명 혐의 입증 어려워
- 7.8: 고문피해자 66명 수사관 집단고소(동아)
 - 백태웅씨 등 48명 복역중
 - 함주명씨 등 장기수 20명
 - 송갑석씨 등 전대협 8명
 - 백태웅씨 등 사노맹 관련자 6명
 - 손병선씨 등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20명이다.
- 7.8: 고문수사관 부더기 고소 의미(한겨레)
 - 함주명씨 등 장기수 20명
 - 송갑석씨 등 전대협 8명
 - 백태웅씨 등 사노맹 관련자 6명
 - 손병선씨 등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20명이다.
 - 국민대생 매장사건 김정환씨
 - 자민통 사건 김기수씨 등
- 7.8: 시국사범 고문수사관 고소 의미(한겨레)
 - '과거 관행 묻어두면 내일에도 계속될 것'
- 9.4: 5.6공 고문피해자 9명 공소시효에 문제제기(한겨레)
- 9.23: 고문방지현약가인 의견(한겨레)

신문기사모음(통신에 나온)

90년도

@고문사건 수사 심리 실종(한겨레 90.1.6)

: 검찰에 계류중인 고문사건

- 박충렬 외 11명: 86년 10월 '반제동맹당' 사건. 고문한 이근안, 한중철, 이강원과 신원 밝히지않은 9명을 서울지검에 독직폭행혐의로 고소했음.

- 홍성담(민족미술연합건설준비위 공동의장): 89년 12월 8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 건으로 연행되어 고문당함.

- 차일환(화가, 민미협소속): 안기부 인천분실 수사관 김군성, 대구분실 수사관 이인회 외 6명을 독직폭행혐의로 고소했음.

- 김성학(38,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납북어부 조작간첩' 사건. 87년에 소원제출, 경기도경 대공분실 경찰관 16명을 제정신청...

@치료 0점에 죽어가는 재소자들(사설/ 한겨레 90.1.12)

- 87년에 숨진 재소자 22명(법무부 국회제출 자료)

~88년 8월까지 13명 사망

- 김병곤(87년 12월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사건 관련), 문익환 목사: 외부진료 거부당함.

@국가상대 항소심 승소-권인숙(인터뷰/ 국민일보 90.1.26)

- 90년도 12월 19일 국가상대 2억원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

@홍성담씨 재판의 잘된 점과 못된 점(사설/ 한겨레 90.2.1)

- 지난 30일 서울 형사지법에서 대형결계그림의 슬라이드를 북한의 평양축전에 보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수사절차상 위법행위에 대한 피고인쪽의 주장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보안법 적용 지난해 봄부터 크게 늘어(미 국무부 발표 한국인권보고서에서/ 한겨레 90.2.22)

- 이내창 의문사 문제 지적: 89년 8월 남쪽해안에서 주검 발생.

- 89년 6월 두명 피의자 경찰조사 받은 뒤 사망.

- 88년 8월 전교조 교사 경찰서에서 쇠몽둥이로 구타당함.

@고문, 접견 거부 사례없어(도리깨-칼럼, 문학진기자/ 한겨레 90.2.25)

: 법무부가 미 국무부 발표한 89세계인권상황보고서 반박한 내용중에서.. 그러나?

- 유원호: 지난 해(89년) 문익환 목사와 함께 북한방문으로 국보법 위반 및 간첩혐의로 구속됨. 안기부에서 조사받는 동안 7개팀의 수사관들이 교대로 들락거리면서 잠을 못자게 하고 몇차례나 발가벗긴채 온몸을 구타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함.

- 홍성담, 차일환: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그림의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냈다는 이유로 구속됨. 안기부에서 무차별 구타당했다고 폭로함. 홍씨 경우 고문피해증거보

전 신청에 따른 신체감정에서 고문받은 사실 인정된 적 있음.

@서승의 얼굴(장명수칼럼/ 한국일보 90.3.2)

- 45살의 중년으로 2.28일 석방됨.

서울대 대학원에 유학중이던 71년 4월 '재일교포 모국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동생 준식씨 (42, 88년 석방)와 함께 검거되어 유죄판결, 무기징역으로 복역당했음.

.. @구속됐던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대법서 무죄확정(국민일보 90.3.15)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연행되었던 전정태(33, 전도사, 수원 울전동 105-5)가 48시간이상 잠을 못자고 곤봉구타와 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며 조작된 것임이 밝혀짐.

@김근태 고문, 논고 요지(중앙일보 90.4.18)

@결정적 증거없어 판결 큰 관심 -김근태씨 고문사건 어떻게 될까(조선일보 90.4.19)

@혐의 끝까지 부인 .. 판결 주목, 김근태씨 고문사건 중형 구형의미(한국일보 90.4.15)

@김근태씨 고문관련 경관 4명 징역 10~5년 구형(한겨레 90.4.19)

@고문은 사라져야 한다(사설/ 국민일보 90.4.19)

-김근태 사건 85년 8월 사건 이후 4년 8개월 만에 결심(1심) 재판.

@고문 추방의 기념비 세우도록(사설/ 한겨레 90.4.20)

@고문수사는 근절돼야(사설/ 세계일보 90.4.20)

@비디오점 모녀 살해범 과연 누굴까(경향 90.6.9)

-지난 해(89년) 11월 24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발생한 비디오 가게 모녀 피살사건 범인으로 구속 기소돼 사형 구형된 10대 피고인 진 모(19)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진군은 여관에서 조사받던중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머리털이 뽑히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함.

@불법연행 다시 활개(동아 90.8.7)

-시사토픽 객원기자 노기원(본명 노종상, 34)씨가 8월 5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23시간동안 조사받고 풀려난 사건.

@인권문제 새 파문, 시국관련 출소자 분신자살 충격(한겨레 90.8.9)

-최동(30)은 정신적 고문으로 자해기도 하는 등 후유증 시달리다 장기치료 못받아 악화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러... 89년 4월 28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다른 이 보다 강도높은 수사를 받았다고 최씨 가족과 인노회 사건 출소자들이 주장. 20여일동안 조사중 잠 안 재우는 고문과 협박당함.

@'인간파괴' 책임자를 처벌해라(사설/ 한겨레 90.8.10)

-'인노회' 사건 관련으로 감옥살이하고 나온 최동씨가 지난 7일 분신자살했다.

대공분실에서 조사중 잠 안재우는 고문과 협박당함.

@강민창씨 무죄비난, 박종철기념사업회 (국민 90.8.18)

@고문치사 은폐조작 무죄판결 부당하다, 박종철기념사업회 (조선 90.8.19)

-박종철 사건 관련자 강민창(전 치안본부장)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부당.

@인권상항의 불길한 앞날(사설/ 한겨레 90.8.19)

-박종철 사건 관련자 강민창(전 치안본부장), 박처원(전 치안본부 5차장) 등 경찰관 4명에게 무죄선고.

@떠나지 않는 불법연행의 악령(사설/ 한겨레 90.8.24)

-전 서울대 여학생회장 이진순씨가 치안본부 대공3부에 불법연행됐다가 하루만에 무혐의로 풀려남.

@구치소 폭력(동아 90.9.28)

-지난 8월 27일 서울 구치소에서 반입 도서 사전 검열로 비롯된 재소자 집단 농성 사건 둘러싸고 구치소, 법무부 측과 재소자 가족, 재야 단체가 한달째 공방중임.

농성진압중 징별방에서 '통닭구이', 고문, 구타했다는 설.

김용기(33,): '삼민동맹' 사건, 교도관에 맞아 항의키 위해 집단농성중 무차별 폭행당함.

문광명(23, 전서울대총학생회장): 중상당했는데도 조치안했음.

이명학(23, 서울시립대3년 재적): '민족통일민주주의 노동자연맹' 사건, 교도관들로부터 '통닭구이' 고문을 당한뒤 호흡곤란으로 폐기종수술받음.

@재야 여성원로 이우정씨(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동아 90.10.20)

-76년 '3.1 명동'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10일동안 조사받는 중에 '잠 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

@범죄와 전쟁 선포 1주일 문제점점(동아 90.10.20)

; 인권침해 크다.

-10월 18일 청부폭력협의로 공모(20, 무직, 마포구 망원동)씨가 강서경찰서로 연행되어 경찰서 지하에서 형사들로부터 다리에 나무막대기를 끼워 돌리는 고문당했다고 주장.

-10월 15일 노원경찰서에서 폭력협의로 연행된 10대 여중생 4명이 형사들로부터 가혹행위 당했다고 주장.

@피의자 인권침해 사실상 무방비(한겨레 90.10.27)

-오경남(40, 경기도 안양시 안양3동): 10월 25일 밤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앞길에서 사복경찰의 심문도중 경찰의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경찰2명으로부터 건방지다는 폭언과 함께 은몸을 구타당하고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형사입건됨.

-강서경찰서 지하 무도장에서 발생한 폭행혐의자 공병진(20)고문사건.

@김근태 고문재판 왜 미적대나(초점/ 동아 90.10.29)

-6공때 홍성담(35)씨, 차일환(31)씨 역시 안기부에 연행돼 발가벗긴채 각목으로 수십차례 얻어맞는 등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며 89년 11월 8일 서울 지검에 안기부 수사관을 독직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악몽의 사흘 - 강도누명(세계 90.11.3)

- '마취강도' 누명쓴 주은하(25, 여), 신모(19)양: 지난 달(10월) 28일 마포서 형사로부터 연행된 직후부터 고문당했다. 주인집 할머니에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인 주범으로 몰려 경찰위 가혹행위로 누명쓰고 3일간 억울한 옥살이당함.

.. @불법연행, 강압수사(동아 90.12.11)

- 송순자(42,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27): 11월 15일 저녁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았던 포주 박모 여인으로 오인받아 검찰수사관에 의해 불법연행돼 18시간동안 조사받으면서 갖은 수모와 폭행을 당했다.
- 11월 4일 북한영화상영과 관련 김옥수(21, 고대 경영학과3년)는 집을 영장없이 압수수색당하고 강제연행뒤 풀려남.
- 8월 5일 시사토포 객원기자 노종상(34, 필명 노기원)는 불법연행됐음.

@인권유린 - 사찰 거미줄(동아 90.12.13)

- 윤 이병(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음)가족 경찰의 감시에 시달림.

@'화성살인' 수사 인권은 뒷전(한겨레 90.12.25)

-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독신자 자살: 차경훈(38) 정신분열 증세 보인다.
- 10대 고교생 김아무개(19)는 무수히 구타당함.
- 박길운(33, 공장노동자): '잠 안재우는' 고문당함.
- 강아무개(19): 허위자백을 강요, 강압수사.

@화성사건, 조작의혹 질다(사설/ 국민 90.12.25)

- 9번째 사건 용의자로 윤모(19)는 가혹행위당함.

91년도

@누명쓴 소년의 인권(사설/ 경향 91.2.11)

- 김모씨: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아홉번째 피해자 김모양의 강간살해 용의자로 구속.
- 홍모씨: 박모(29, 여)씨 살해범으로 (87년 5월) 구속영장 신청.
- 전모씨: 88년 12월 50대 여인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경찰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

@형설수설(칼럼/ 동아 91.10.31)

- 2명의 수감자가 전북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돼 있는 동안 두손에 수갑이 채워져 발꿈치가 들린채 감방창살에 매달려 있었다.
- 허윤하(30, 전북부안군 농민회 경제협동사업부장): 쌀값보장, 전량수매, 쌀 수입 결사반대 구호를 담에 스프레이로 쓰다가 이를 지우던 면직원과 싸움에서 경찰이 광고물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 입건해 정주경찰서의 대용감방에 수감했다.

92년도

@경찰3 -가혹행위(한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한겨레 92.7.15)

-김성민(24): 서울 사당동 아가방 옷가게 여주인 피살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수사과정에서 물고문을 당한뒤 무죄로 풀려나옴.

@김창국교수 퇴임 기념문집 '나의역사 나의 이야기'(한겨레 92.9.6)

-김병결: 고문당함.

@서승 -일그러진 인권, 일그러진얼굴(인물탐구/ 한겨레 92.9.23)

-간첩 올라미에 19년동안 억울한 옥살이. 71년 4월 '제일동포 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검거되면서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견디다 못해 분신을 기도, 심한 화상으로 상처 크게 났음.

93년도

@가정파탄 부른 강압수사 -자살기도 김종경씨 사연 (중앙 93.8.4)

-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김종경씨 자살기도, 중태상태.

92년 6월 경기도 경찰청에 연행 6개월간 조사후 풀려났으나 고문으로 하반신 마비증세. 정신분열 증세 보여옴.

-이사건으로 90년 12월 18일 용의자 차경훈(당시 38)씨 자살,

민모(23, 오산시 양산동)씨와 박모(29, 오산시 원동)씨, 윤모(19)씨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강요당함.

@고문피해 잇단 소송준비

; 5.6공 피해자 정신질환 등 후유증 심각(한겨레 93.9.19)

-문국진(31, 연대79학번):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 국가상대 손해배상요구 민사소송중. 지난 80년 경찰에 구속돼 심한 고문뒤 86년 10월 시국사건으로 다시 연행돼 2개월간 청량리서, 성동서에 갇혀 있으면서 독방에 은뭍이 묶인채 폭행 등 고문당함.

-최동(성대 국문4년 제적): 89년 4월 '인천부천노동자회' 사건으로 구속, 정신병 앓던중 자살.

-전희식(35, 전 진보정당추진위 인천북갑 위원장): 92년 9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연행돼 안기부에서 48시간동안 심한 폭행당해 3주 진단이 나옴.

@김기웅 순경 -억울한 옥살이(한겨레 93.12.11)

- 93년 11월 29일 애인 이아무개(18)양이 숨진뒤 살인용의자로 지목, 연행된뒤 사흘동안 잠을 자지 못한채 허위자백을 강요당함. 1년간 옥살이 하다가 진범이 잡힘으로 석방.

@자유인 김순경의 증언(사설/ 세계 93.12.18)

94년도 신문기사모음(통신에 나온)

@검경 검사 인권침해 여전(민주당 사례6건 발표/국민일보 94.1.13)

- 강덕환(26, 제과점 공장장): 충남홍성에서 강도강간 혐의로 연행 고문으로 허위자백 1년간 억울한 옥살이 당함.
- 김기웅(29, 순경): 애인피살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당함.
- 배병성(21, 외국어대3년): 김춘도순경 폭행치사혐의로 복역중. 가혹행위.

@여전한 고문폭행(사설/조선일보 94.1.14)

- 인천지검 검사의 마약복용 피의자 폭행문제에 이어
1월 13일에 또 서울지검남부지청 검사가 사기 피의자 조사중 폭행했다는 보도.

@주목되는 검찰폭력처리(사설/중앙일보 94.1.14)

- 인천지검 검사, 서울남부지청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심증과 무죄(한마당 칼럼/국민일보 94.1.20)

- 김영복(30, 고물행상): 1월 15일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살인강도로 지목되어 무기징역으로 첫 재판(11월 15일)에 복역중.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했다고 주장.

@김병상 신부(화요일에 만난 사람/한겨레 94.2.8)

- 정의구현사제단 공동대표로 70~80년대에 고문당함.

@피의자 폭행 검사 고발, 서준식씨(한겨레 94.2.16)

- 마약복용 혐의 피해자를 폭행한 인천지검 안희권 검사를 독직폭행혐의로 대검에 고발함.

@한국 인권개선 안돼(국제사면위 보고서/국민일보 94.3.9)

- 93년 9월 김삼석, 김은주 남매가 간첩 혐의로 안기부로 연행되어 구타 및 성추행 당함.

@양심수들 고문수사관 곧 고발(한겨레 94.6.10)

- 송갑석(전 전대협위원장) 및 관련자 7명
백태웅(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의 10명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의 16명
김성만(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의 공안관련자 17명
박충렬, 이민영(반제동맹사건)

@최열(나의 삶 나의 생각/중앙일보 94.6.12)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현재)
79년 유신시절 11월에 명동YM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들어가서 고문당함.

<동아일보>

제 목 : 정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정식가입 방침

정부는 그동안 가입을 미뤘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비준을받는대로 올해안에 정식가입할 방침이다. 韓昇洲의무장관은 8일 열린 「유엔50주년기념 한국위원회」 창립 총회 축사에서 『우리는 작년부터 유엔인권위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대로 유엔고문방지조약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고문방지협약가입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지금까지 가입이 지연돼왔다.

이 협약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가입후1년이내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이후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범죄인인도와 사범공조등 고문 행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등을 규정하고 있다.

발행일 : 94/04/08

제 목 : 정부, 국제사면위원회 인권보고서 항의

정부는 10일 국제사면위원회(AI)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서를발간, 새정부의 인권상황이 몇가지 분야에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데 대해국제사면위원회에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정부 출범후 고문등 인권침해사태가 사라졌다는 것을주요내용으로 하는 인권백서를 발간, 국제사면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이날駐英대사관을 통해 『국제사면위 보고서는 새정부 출범이후 민주화정책에대해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특히국 제사면위가 당사자및 가족들의 주장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국제사면위원회 본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또 『국제사면위가 지적한 사례는 간첩죄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건일뿐현재 정치범은 있을 수 없으며 문민정부 출범후 고문은 물론 다른 가혹행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발행일 : 94/03/10

제 목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인권보고서' (요지)

국제사면위원회가 9일 발표한 29쪽분량의 한국인권상황보고서는 『金泳三대통령이1년전 취임사에서 「정의가 강물처럼흐르게할것」이라고 밝힌것과는 달리한국의인권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면위는 「새정부에서도 인권침해는 계속되고있다」는 副題의 보고서를통해작년말 현재 정치범은 2백80명에 달하며 그중 80%이상 국가보안관련법규에연루됐으며 신정부 들어서도 수십명의 양심범이 체포됐고 고문과 가혹행위가연전하다고 주장했다. 사면위의 보고서는 한국정부 입장이나 일반국민의 인권문제에대한 인식과는 상충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국제인권 단체들의시각을 대변하고 있어 그 요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양심범과 정치범>

한국의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있는 反국가단체나 간첩등의 정의는 워낙광범위하고恣意적이다.

예컨대 지난90년이후 무려 2백여명이 넘는 사회주의인사가 체포되어 이 가운데60여명이 아직까지 수감돼있는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의 경우한국정부의 주장대로 민주정부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라는 증거는 없다.

93년 한햇동안 수명의 한국인이 정부허락없이 북한인과 접촉, 체포구금됐다. 몇몇은 같은 사안으로 체포되어 몇년째 수감중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들 북한방문객이나 북한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간첩혐의나 국가안보를 해친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투옥할수 없다고 석방을 요구해오고있다.

90년 제정된 남북교역및협력법안에 따르면 남한인은 정부의 허락하에 제3국에서북한인을 만나거나 북한을 방문할수있지만 정부정책비판자나 반정부인사들은 계속접촉허락을 거부당해왔다.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차개입금지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항상 구속될위험에 직면해 있다.

<인권개선의 실패>

한국에는 현재 70, 80년대 조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혐의에 의해 장기복역하고있다. 그들은 간첩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국제사면위는 이들 복역수들중 많은 사람들이 안기부에 의해 체포된지 60일이되도록 외부와 격리돼 가혹한 형태의 고문을 받고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국제적기준의 정당한 재판을 받지못한채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정보를 갖고있다.

이밖에도 불법체포와 격리감금, 안기부에 의한 가혹한 고문, 정당하게 변호받지못하고 목격자들이 협박받는 부당한 재판사태가 많이 있다.

안학섭(63)과 김순명(69)은 한국전쟁중 체포됐으며 현재까지 수감돼있다. 그들은세계에서 가장 오랜기간 수감돼있는 양심수들중 하나다. 두사람은간첩혐의를받고있으나 부당한 재판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은 단순한 전쟁수감자들에 불과한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은 그들이 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해유예에 의한가석방은 고려하지 않고있다.

한국정부는 또 91년 고도의 정치적 재판에 의해 3년형을 선고받은 강기훈에 대해재심리하는데 실패했다. 93년6월 소장판사들은 공개적인 사법개혁을 위한촉구성명에서 이사례를 언급했다.

80년대 후반만 해도 물고문과 전기고문이 관행화되다시피했다. 이러한 고문들은점차 사라졌지만 아직도 정치범들에게는 자백을 강요하기위해 각종 고문과가혹행위가 자행되고있다.

지난해 국제사면위원회에 보고된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치범들이관계기관에연행돼 조사받는 처음 며칠동안 거의 잠을 자지못한것으로드러났다. 몇몇 경우는 처음 48시간은 한숨도 자지못하도록하고 다음에는 하루한두시간밖에 눈을 붙이지못하도록 강요했다. 또 어떤이는 구타와 협박 기합등가혹행위를 당했다. 대부분의 심각한 인권유린사태는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저질러졌으며 경찰서내에서의 가혹행위도 보고됐다.

잠을 안재우는 고문은 그것이 정치범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점에서 사면위의 심각한 우려를 사고있다. 잠안재우는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못하는 사실상의식불명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말하고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얻어진 자백이 법정에서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권리를 행사하다 구금된 모든 수감자들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석방돼야한다.

나. 국가보안법을 개정, 비폭력적인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거나 사형에처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노동쟁의조정법 가운데 3차개입 금지조항을 개정, 노조운동가들로 하여금구금되지 않고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전향하지 않은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급하고 있는 행정규정을 개정,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다 구금된 수감자들에게까지 이 규정이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지난 수십년간 국가보안법하에서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정치범들에 대해서는 수감경위를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바. 군징병자들에게 양심에 입각한 반론의 기회를 부여, 징병에 반대하는사람들에게는 징병기간동안 민간부문에서 대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것이다.

사. 정부는 고문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협약을 비준, 고문과 가혹행위 폐지에 관한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협약21조와 22조에 따라 고문방지위원회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협약위반에 관한 주장을 접수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아. 피체포자는 즉각 판사에게 보내져야 하고 또한 변호인과 가족들의 즉각적이고정당한 접견권이 부여돼야 하며 객관적인 의료검진이 행해져야 한다. 신문을담당하는 기관과 구금을 결정하는 기관간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자. 정부는 고문에 의한 수감자의 진술은 인정될 수 없고 또한 법절차나 실제에있어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수감자가 자신의 자백이고문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자백이 자발적인 것이고 고문이나가혹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구금과 신문을 담당한 기관이 지도록해야 할 것이다.

차.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될 경우 즉각 불평부당하고 독립적인 기관에의한 수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기관에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고문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을 출석시켜 증언토록 할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조사결과는 공개돼야 하며 고문과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인사들은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해야 할것이다.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은 사람들은 정당하고적절한 보상과 함께 가능한완전한 복권이 행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카. 정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모든 사형선고는 감형해야 할것이다.

발 행 일 : 94/03/09

제 목 : [토픽]로마 고문기구박물관 "너무 끔찍"

60년이상 연구용으로만 이용됐던 고문기구등이 보관된 로마범죄학박물관이지난주부터 일반에 공개돼 이미 수천명이 다녀갔으나 일부 관객들은너무나도끔찍한 모습에 도중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이 박물관에는 끔찍한 고문기구들 외에 처형과 태형의 모습을 묘사한 16세기의羊皮紙일기장 등도 있는데 박물관 관계자들은 이 박물관이 단순한 "공포의 집이아니고 범죄에 대한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발 행 일 : 94/03/09

제 목 : "문민정부 1년 인권개선 안됐다"... 국제사면위원회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에 문민정부가 들어선지1년이 지났지만군사정부 당시보다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9일 비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金泳三 대통령이 32년만에 처음으로진정한 문민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지난 1년간 새로운 고문과 가혹행위가 한국에서발생한 것으로 보고했으며 수십명의 정치범과 양심수들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金泳三 정부가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위해 한 일은 사실상아무것도없으며 이

전 정권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날조된 죄목으로 투옥된 수십명의 양심범이 관련된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도 없다"고 비난했다.

국제사면위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약 2백명이 수감돼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발행일 : 94/03/09

제목 : [미니해설] 裁定신청이란 무엇인가?

고소나 고발을 했음에도 이를 접수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고발인이 기소여부의 심리를 고등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은 공소유지를 위해 변호사를 지정, 검사의 직무를 대행케 해야 한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과 金權泰씨 고문사건 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與野의 통합선거법 협상에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選管委에 줄 것이냐(民自), 후보자에게 줄 것이냐(民主)가 쟁점이다.

발행일 : 94/03/02

제목 : "고문 피해자 대부분 후유증에 시달려"-고문후유증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에서 "고문후유증 사례보고및 토론회"를 갖고 고문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경씨(43)등 고문 피해자 2명의 가족이 나와 피해사례를 직접 발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고문을 당한 김씨의 부인 오윤자씨는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 남편 김씨가 범인으로 몰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고문을 통한 취조를 받고 나온 이후 아무때나 헛소리를 하고 '나는 사람을 죽이지않았다'는 고함을 지르는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오씨는 또 "남편이 유서를 써놓고 흥기로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지금도 술만 먹고 난동을 부리다 술이 깨면 괴로워하는 등 거의 폐인이 됐다"며 "고문으로 인해 집안이 엉망이 됐다"고 밝혔다.

또 함께 사례발표에 나선 고문피해자 강환웅씨(30)의 어머니 강희숙씨는 "아들강씨가 지난 86년 11월 시위로 붙잡혀 서울 노량진경찰서등에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난 이후 '죽고싶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환청에 시달리는등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 3차례나 입원하는등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약으로 연명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전해철변호사는 "고문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심문참여권 보장,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고문 피해자의고소의 실효성 확보등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들은 피고인 접견권을 활용해 초기단계에서 고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변호사는 또 "고문의 범죄시효 기간을 없애야만 가해자가 나중에라도 처벌을받을 것을 우려해 고문을 기피하게 된다"며 "어떤 이유에서도 고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형사절차의 관여자뿐 아니라 국민모두가 깊이 인식할 때 고문이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길승 성수의원 원장은 "의학적으로 고문을 당한 피해자의 81%가 뇌기능 장애를 보이며 62%는 신경기능 이상증세를 호소한다"며 "정신적으로는 기억장애, 인지기능장애, 정신집중 장애, 감정조절장애 현상등이 나타나고 신체적으로는 치통, 두통, 관절통, 근육통등이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양원장은 이에 따라 "의료인은 고문을 돕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고문피해자를진료했을 경우에는 그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행일 : 94년4월11일